

◎國寶第三六七號 楊平 上院寺銅鐘은 서울曹溪寺에 保管되어 있는 바 鐘形態나 鐘身の彫刻이 우리 나라 鐘으로서 疑心스러운 點線으로 「上院寺大鐘」이라 刻字되어 있어 果然 上院寺에 있던 것인지 그 眞否를 調査中에 있다.

◎高麗大學校에서는 第二次로 慶南 昌原郡 熊川所在 貝塚를 發掘하고 있다. 지난 八月初旬부터 着手된 同發掘은 앞서 發掘한 第一次 發掘의 繼續調査라 한 다.

◎文化財調査를 爲하여 鳥致院方面에 出張한 同人 黃壽永 秦弘燮 兩氏는 「癸酉年」銘이 있는 阿彌陀三尊佛像을 調査하였는 데 前後左右와 蓋石에 八百餘軀의 小佛像이 있어 매우 稀貴한 遺例라 한다. 文教部에서는 直時假指定措置를 取하였 다.

◎一九五九年 十月부터 着手되어 一九六〇年 三月까지 五個月餘에 걸쳐 發掘調査한 感恩寺址와 同寺址의 西塔에 對한 報告書가 發刊되었다. 著者는 金載元 尹武炳 兩氏로 되어 있으며 本文 九七面 圖面二五枚 圖版六十插圖五十四圖이다.

附錄

石窟庵 古記錄

◎三國遺事 卷五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牟梁里(一作浮雲村)之貧女慶祖有兒。頭大頂平如城。因名大城……(中略)……既壯。好遊獵。一日登吐舍山。捕一熊。宿山下村。夢熊變爲鬼。訟曰。汝何殺我。我選啖汝。城怖懼請容赦。鬼曰。能爲我創佛寺乎。城誓之曰喏。既覺。汗流被屨。自後禁原野。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因而情有所感。悲願增篤。乃爲現生二親創佛國寺。爲前世爺孃創石佛寺。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茂張像設。且酬鞠養之勞。以一身孝二世父母。古亦罕聞。善施之驗。可不信乎。將彫石佛也。欲鍊一大石爲龜蓋。石忽三裂。憤恚而假寐。夜中天神來降。畢造而還。城方枕起。走跋南嶺蕪香木。以供天神。故名其地爲香嶺。其佛國寺雲梯石塔·彫鍊石木之切。東部諸刹未有加也。古鄉傳所載如上。而寺中有記云。景德王代。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始創佛國寺。歷惠恭世。以大曆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國家乃畢成之。初請瑜伽大德降魔住此寺。繼之至于今。與古傳不同。未詳孰是。讚曰。牟梁春後施三畝。香嶺秋來獲萬

第一卷 第八號 通卷十三號

金。萱室百年貧富貴。槐庭一夢去來今。

◎山中日記(下) 愚潭 戊辰 五月十五日 一六八八年

慶州(閔泳珪 教授 油印本)

……東南行四十餘里至佛國寺石砌石塔比海印寺尤奇怪入坐法堂則制度與他寺頗異開豁明朗即新羅時所創云周觀空殿數處則有鑄銅佛二所皆丈餘奇怪天成左右長廊數十間基在慶府南過嶺處山麓凡眼不可曉也坐香龕室與佛尊僧國衍語夕食後衍師進蜜水及餠糖乾柿等物坐良久使僧統登信定僧上俊峯頗峻急極力行十餘里逾嶺下里許至石窟菴僧海明迎入坐小時上石窟皆人切所爲石門外兩邊皆刻佛像於大巖各四五奇巧天成石門切石如虹其中大石佛像儼然如生坐臺石正齊奇巧窟上蓋石及諸石圓正無一傾邪佛像列立如生奇怪不可名狀一段奇觀罕倫實翫良久下宿菴

◎佛國寺古今歷代記(延大「學林」第三輯)

萬曆四十二年癸未從悅重剝石窟庵又築窟前石階五十七年戊戌重剝化主大謙

◎石窟庵重修上棟文 (李太王二十八年辛卯孫永者述) (小野玄妙「極東三大藝術」所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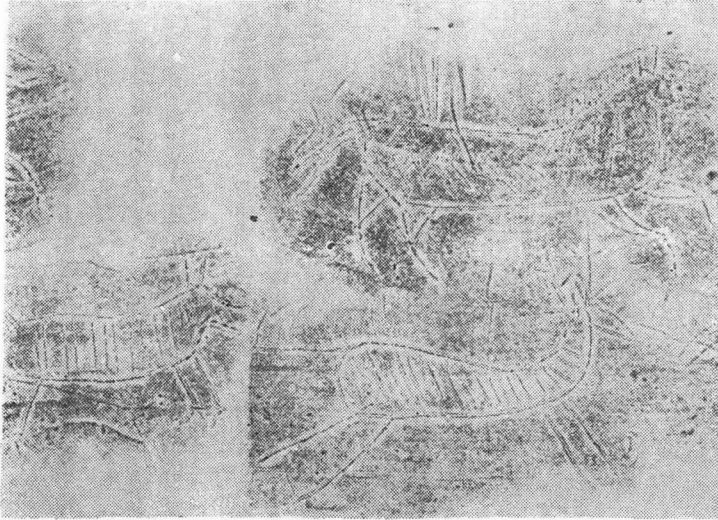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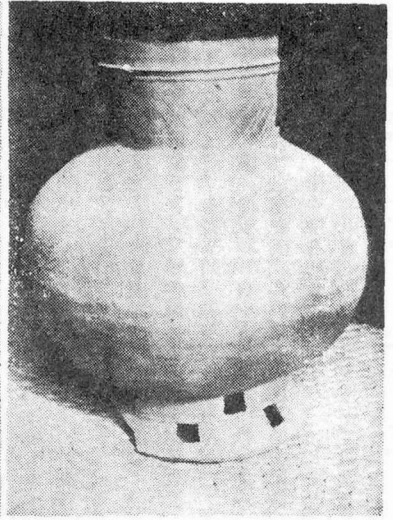
新羅 動物文壺

洪 思 俊

——第二卷 第九號 通卷十四號——

最近에 慶南 蔚山郡 靑良面 德下里에서 出土되었다는 新羅土器를 慶州月城의 古物商 昔氏家에서 보았는데 壺形式에서는 別다른 特異點이 發見되지 않았으나 中腹以上 肩部以下에 橫으로 二列하여 馬、牛、鹿三類의 線刻 獸文이 있음에서 이 곳에 紹介한다.

이 動物畫壺의 現狀은 口頸이 半破되었고 臺座도 半이 破損되었으나 原形을 짐작할 수 있다. 殘存된 頸部는 口外側으로 平行二線의 凸帶가



돌러 있고 그 밑에는斜線을 左右로 交叉시킨 線刻을 나타내었다. 壺肩以下 壺中腹以上の 間隔에는 二列橫으로 上段에 馬五匹 下段에 馬四匹 牛二頭 鹿一頭 上下合計 十二頭의 獸文을 亦是 線刻으로 表現하되 머리를 向해서 右側으로 두었다. 馬匹의 線刻中에는 尾毛 三、四線을 左側으로 내려고 다시 腰上에도 三、四線이 上向하여 그어져 있음이 特殊하며 牛畫는 頭上 兩角과 尾一條를 모두 上向하여 그려 있고 足部를 鷄足같이 三指로 表現하였다. 鹿畫는 兩角에 各各 가지 (分枝)가 돌았고 足部는 脚線으로만 그쳤다. 臺座에는 上下層段을 區分하여 方孔이 等間隔

으로 上下各六孔이 잇바뀌서 풀려졌다. 貴重한 動物文畫壺의 新例로서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總高 四二·〇cm 口頸高 一一·五cm 同徑 一七·〇cm 腹部高 三六·五cm 同徑 三四·九cm 臺高 五·五cm 徑 二五·〇cm

燕岐의 三尊千佛 碑像

秦 弘 燮

鳥致院邑에서 徒步로 二、三十分되는 距離에 瑞光庵이라는 庵子가 있고 그 옆길가에 稀貴한 碑像 一座가 露天에 安置되어 있다. 이 碑像의 原所在地는 알 수 없으나 瑞光庵主의 말을 들으면 鳥致院邑內 도랑에 묻혀 있던 것을 五、六年前에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 아마도 日人의 舊藏인 듯하다고 하니 隣近의 어느 寺址에서 얻어다 두었다가 解放後에 버리고 간 듯하다.

全高 約 九一cm 身幅은 下部에서 五〇cm 上部에서 四七·五cm 厚는 下部에서 十五cm 上部에서 十四·五cm의 黑灰色蠟石製의 이 碑像은 臺座 蓋石이 具存하고 있다. 臺座는 單瓣蓮花를 正面과 兩側面에 彫刻하였고 前面은 若干 앞으로 弧線을 그리며 튀어나와 碑身에 彫刻된 三尊像을 받게 되어 있다. 碑身에는 前面上部 中央에 三尊像이 뚜렷이 浮刻되었는데 그 出이 三一·五cm나 된다. 本尊은 方座上的의 坐像으로 像高 二一·五cm이다. 衣文과 胸部 兩手와 顔面의 磨損이 甚하나 右足을 앞으로 한 跏趺座를 結한 위에 通肩이며 左手는 臍前에, 右手는 施無畏의 印을 結하였다. 顔面은 긴 편이며 그 뒤에 若干 內彎된 寶珠形 光背가 있다. 中央에 單葉蓮花를 두고 周緣에 火焰文이 있으며 그 사이에 連珠文이 있다. 臺座는 거의 全部 衣褶으로 덮혀 있으며 膝下에 蓮花紋一帶가 보이며 臺下部에 衣端 사이로 眼象이 보인다.

左右의 兩脇侍菩薩은 身高 共히 一一·五cm의 圓形 蓮臺上的의 立像이다. 亦是 磨損이 甚하기는 하나 端正한 모습을 能히 짐작할 수 있다.